

“Y사 회원사 물량 가로채기” 인천항 하역업계 갈등 유발

물류협회 ‘거래질서 협조’ 목살... “공멸할 것” 지적

〈속보〉 인천항 하역업계간 경쟁이 출혈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21일자 19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항토 기업인 Y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화물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업계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22일 인천항 하역업계에 따르면 인천항 하역업체들의 모임인 인천항 만물류협회는 최근 ‘하역사업자간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인가요금표에 의하지 않는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되며 회원사간 하역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 보냈다.

하지만 Y사는 운송전문 물류회사를 통해 낮은 요율의 견적을 제출, C사와 14년째 거래하고 있던 철강회사의 하역을 수주받았다.

협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회원사의 화물을 유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C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량 유치전에 나선다면 인천항은 과당경쟁과 출혈경쟁만 초래할 것”이라며 “인천항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이후 하역업계가 경쟁 체제에 돌입한 만큼 신규 물량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화주

유치 또는 신규 화물 유치가 아닌 회원사의 물량을 가로채는 것은 건전한 항만 하역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요율 덤핑 등 과당경쟁이 계속될 경우 업계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Y사 관계자는 “덤핑 수주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과당경쟁은 자제해야 하지만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회원사를 떠나 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경기일보

2007년 11월 23일 i07면

인천항 창고업체들 ‘LME 지정창고’ 등록

〈런던금속거래소〉

인천항 창고업체들이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지정창고 등록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22일 LME 물량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구 마이트앤메인) 등 3개 창고사업자가 LME 공식 에이전트와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한 뒤 LME 지정창고 등록

내항 3부두 창고(5천32㎡)를 LME 물량 처리에 활용할 예정인 동부익스프레스는 C. STEINWEG사와 지난 10월12일 일찌감치 사업 제휴를 마쳤다.

동부익스프레스와 C.STEINWEG사는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LME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M&M은 4부두 배후지에 있는 2개동의 창고를 각각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10월19일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특히 METRO

International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국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첫 물량 반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창고수용 최대치(2만톤)의 물량 반입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진공사 역시 METRO International사와의 제휴를 목표로 현재 사업자간 세부 요율을 협상 중으로 조만간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한진·동부익스프레스·M&M, 물량반입 계약 체결

내년초부터 화물 처리 시작... 영진공사도 등록 추진

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LME 지정창고 등록을 순조롭게 마친 이들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항 4부두 종합물류센터를 LME 지정창고로 등록한 ㈜한진은 C&P Asia와 NEMS 등 2개 에이전트와 지난 10월19일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해 총 1만2천500㎡(최대 반입 물량 4만2천t) 면적에서 LME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진·동부익스프레스·M&M LME 지정창고 등록 완료

〈런던금속거래소〉

인천항 창고 운영업체인 (주)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옛 마이트앤메인)이 런던금속거래소(LME) 비철금속 물량을 처리하는 창고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3개사 운영하는 창고는 LME의 국제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하고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받은 창고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LME 지정을 받은 창고는 (주)한진이 내항 4부두에 조성한 종합물류센터 12,500㎡이다. 동부익스프레스는 내항 3부두 창고 5천32㎡, M&M은 4부두 배후지 창고 2개동 8천580㎡이다.

한진은 LME 공식에이전트인 C&P Asia와 NEMS 등 2개사와 지난달 19일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해 모두 4만2천t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동부익스프레스는 C.STEINWEG사와 지난달 12일 일찌감치 사업제휴를 마쳤다. 동부익스프레스와 C.STEINWEG사는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LME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M&M도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지난달 19일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특히 M&M과 계약



지난달 19일 LME 공식 에이전트와 제휴해 지정창고 등록을 마친 M&M 창고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을 체결한 METRO International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국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첫 물량 반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창고수용 최대치인 2만t의 물량 반입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영진공사도 METRO International사와의 제휴를 목표로 현재 사업자간 세부 요율을 협상 중으로 조만간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IPA는 인천항에서 LME 화물이 최초로 취급되는 만큼 원활한 물량 반입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백범진기자 bjpak@today.co.kr

경인일보

2007년 11월 23일 003면

이명박·정동영 주말·휴일 인천공략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이번 주말 인천을 각각 방문, 지지를 호소한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7시 30분 중구 파라다이스호텔 대강연장에서 열리는 '2007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 대화'에 참가한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각계 인사들 앞에서 '굵직한' 인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안, 2014 아시안게임과 2009 세계도시엑스포 지원책, 인천항만 발전 전략, 경인운하 건설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도 다음날인 25일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새얼아침 대화의 초청 연사로 참여한다.

정 후보는 '물류 중심지 인천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인천 공약으로 신안산선과 수인선 연결, 외곽순환도로망 확충, 경인운하 건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내세웠다.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관으로 열리는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는 지난 14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항 창고업체 3곳

LME 지정 잇단 등록

인천항이 세계적 비철금속 선물 거래소인 LME(런던금속거래소) 창고 유치자격을 획득하자, 창고업체들의 지정창고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주)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구 마이트앤메인) 등 3개 창고사업자가 LME 화물 취급 자격을 증명해 창고지정 및 등록을 마쳤다. 이들 3개 사업자는 LME의 공식 에이전트와 물량 반입 계약도 체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내항 4부두 종합물류센터를 LME 지정창고로 등록한 (주)한진은 C&P Asia와 NEMS 등 2개 에이전트와 총 1만2천500㎡(최대 반입 물량 4만2천t)의 부지에서 화물을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M&M은 4부두 배후지의 창고 2개 동을 각각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특히 METRO International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 한국사업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첫 물량 반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창고수용 최대치(2만t) 물량 반입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C.STEINVEG사와 내항 3부두 창고(5천32㎡)를 LME 물량 처리에 활용하기로 계약했고 이밖에 영진공사와 대우로지스틱스도 같은 회사와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희기자 (블로그)ywsong2002

하역업체들 덩핑수수

“제살깎기…” 대책 시급

인천항 상용화 이후 하역업체들이 운영수익을 맞추기 위해 신규물량을 유치하기 보다는 손쉬운 덩핑수수 등 제살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항만업체들에 따르면 내항 Y업체는 소규모 하역사인 C업체가 14년째 거래하고 있는 철강회사의 화물 하역을 낮은 요율로 덩핑수주를 하는 등 과당경쟁을 일삼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용부두 우선사용자로 하역작업을 해

오다 지난 10월 2개 선석을 TOC(부두운영회사)로 전환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Y업체가 물량을 빼앗아 가는 것은 경쟁을 넘어 상도익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Y업체는 정부로 부터 임대받은 항만관련 부지를 물류회사에 철강재 야적장으로 재임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대형 하역사들이 정도를 지켜 신규물량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신문

2007년 11월 23일 007면

북항 준설토투기장 연말 착공

인천해수청, 무상사용·사업착수 신청 승인

항만공사, 외곽 호안보강공사부터 본격화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이 올 연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목재부두와 동부익스프레스가 내년 본격 운영에 대비한 배후물류단지, 북항준설토투기장 56만2천695㎡(약 17만평)를 조기에 조성하기위해 지난달 말 인천항만공사가 신청한 무상사용과 사업착수 신청을 승인해줬다고 22일 밝혔다.

북항투기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부두자산에 대한 무상 현물출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그러나 북

항투기장에 대한 사용권을 IPA에 이양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

사용권을 넘겨받은 IPA는 준설토투기장의 외곽 호안보강공사를 올 연말 착공기로 했다. 이어 IPA는 내년부터 연안지반처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2년간에 걸쳐 벌인다.

IPA는 북항준설토투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올 연말 나오는 ‘부지조성을 위한 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류단지 배치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홍근 IPA건설본부장은 “연안지

반 공사를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한 시일을 앞당길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PA는 이어 오는 2009년 북항물류단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키로 했다.

인천해수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IPA가 이번 호안보강사업을 시작으로 북항 17개선석이 완전 개장되는 오는 2011년 이전까지 배후부지를 적기에 공급해 항만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항준설토투기장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천항 종합발전계획’과 인천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07년 물류정책방향’에서 철재와 목재를 처리하는 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백범진 기자 bjpak@i-today.co.kr

인방사 인천신항 이전 논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LNG 생산기지 인접...유사시 대형참사 우려

시, 해수부와 합의...이르면 2011년 가능

군 부지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

인천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를 LNG 생산기지가 인접한 신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2020년 준공 예정인 신항 2단계 사업 예정부지에 인방사를 이전토록 해양수산부와 합의(그림 참조), 국방부와 이전 시점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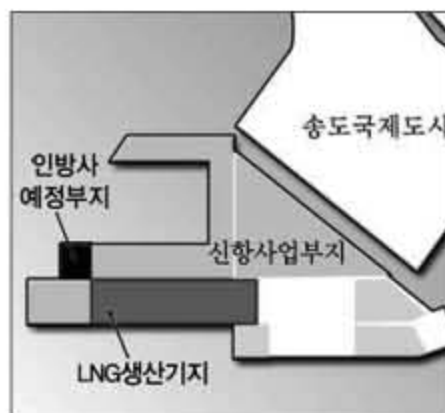
시는 중구 북성동 연안부두 21만㎡ 인방사 부지에 오는 2013년까지 수도권 최대 규모의 현대화된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을 방침이다.

이 계획은 오는 2009년 인천대교

개통으로 군 작전 수행의 어려움을 예상한 인방사가 이전을 서두르고 있어 예상보다 이전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신임 인사차 안상수 시장을 접견한 박찬석 인방사령관(준장)은 “부대 이전은 인천대교 건설 초기단계부터 이미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대교 개통으로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부대 이전을 서두를 수 있도록 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국방부와 이전 비용(3천400억원 추정)에 대한 원만



한 협의가 이뤄지면 2단계 신항 건설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NG 생산기지 내 여유 부지를 이용하면 신항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이라도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 같은 계산은 시가 인방사 이전 시점에 맞춰 추진 중인 수산물종합

유통센터 건립 계획과도 일치한다. 시는 지난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유통센터 건립 용역을 맡겨,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방사 이전 부지로 검토되는 인접지역에 LNG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어 유사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호 시의원(연수1)은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LNG 생산기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시설까지 옮겨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히 군 시설을 위험시설 근처에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시가 계획대로 군 부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지견태기자 jus216@i-today.co.kr

전국매일

2007년 11월 23일 013면

인천항 창고업체, LME 지정등록 ‘순항’

한진·동부익스프레스·M&M 등 3곳 에이전트와 제휴

인천항 창고업체들이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지정창고 등록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22일 LME 물량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주)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구 마이트앤메인) 등 3개 창고사업자가 LME 공식 에이전트와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한 뒤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LME 지정창고 등록을 순조롭게 마친 이들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내항 4부두 종합물류센터를 LME 지정

창고로 등록한 (주)한진은 C&P Asia와 NEMS 등 2개 에이전트와 지난달 19일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해 총 1만2,500㎡(최대 반입 물량 4만2,000t) 면적에서 LME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항 3부두 창고(5,032㎡)를 LME 물량 처리에 활용할 예정인 동부익스프레스는 C·STEINWEG사와 지난달 12일 일찌감치 사업제휴를 마쳤다. 동부익스프레스와 C·STEINWEG사는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LME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M&M은 4부두 배후지에 있는 2개동의 창고를 각각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지난달 19일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인천/ 신재호기자

〈shinhj@jeonmae.co.kr〉

기반시설 공사 등 진행 순조 목재부두 2선석 올안 완공

인천내항 화물의 전이처리를 위해 개발 중인 인천북항은 지난 2006년 말 철재부두 3선석 완공을 시작으로 금년 내 목재부두 2선석 완공예정 등 오는 2011년까지 전체 17선석의 부두 개발이 완료돼 잡화, 원목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북항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 배후도로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항 준설토 투기장(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438)을 항만배후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항건설사무소와 인천항만공사(IPA)가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중으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착수 전 기초작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 일부를 보강하는 공사를 오는 12월 중 착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이 북항은 이번 호안보강사업을 시작으로 17개 선석이 완전 개장되는 오는 2011년 이전에 배후부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항만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ailbo.co.kr

북한 개성총회사(대표 손경철) 소속 북한국적 화물선 지성3호(1천548t급)가 울들어 7번째로 인천항에 입항한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지성3호는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및 남북해운 부속합의서 제1조 규정에 따라 통일부의 운항허가를 받아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항 내항 1부두에 입항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천t을 싣고 출항한 지성3호는 22일 오후 전남 광양항에 입항해 싣고 있던 석탄을 하역한 뒤 25일 인천항에 들어와 시멘트 등 잡화를 싣고 27일 오전 북한 남포로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원웅기자/wykim@joongboo.com

인천일보

내년 북항 배후부지 개발

인천 북항 일대의 항만 배후부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인천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 준설토투기장을 항만 배후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인건소와 인천항만공사의 관련 용역이 내년 초에 끝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안으로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도 시작된다는 게 인건소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도 공사 착수 전에 기초작업으로 북항 준설토투기장 호안 일부를 보강하는 공사를 12월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송영휘기자 (블로그) ywsong2002

인천항 창고업체 LME 사업 순항

〈런던금속거래소〉

한진·동부익스프레스·M&M 등 LME에이전트와 제휴 등록마쳐

인천항 창고업체들이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지정창고 등록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현재 ㈜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구 마이트앤메인) 등 3개 창고사업자가 LME 공식 에이전트와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한 뒤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LME 지정창고 등록을 순조롭게 마친 이들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항 4부두 종합물류센터를 LME 지정창고로 등록한 ㈜한진은 C&P Asia와 NEMS 등 2개 에이전트와 지난 10월19일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해 총 1만2천500㎡(최대 반입 물량 4만2천t) 면적에서 LME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항 3부두 창고(5천32㎡)를 LME 물량 처리에 활용할 예정인

동부익스프레스는 C. STEINWEG사와 지난 10월12일 일찌감치 사업제휴를 마쳤다.

동부익스프레스와 C. STEINWEG사는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LME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M&M은 4부두 배후지에 있는 2개동의 창고를 각각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10월19일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특히 METRO International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국사업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첫 물량 반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창고수용 최대치(2만t)의 물량 반입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진공사 역시 METRO International사와의 제휴를 목표로 현재 사업자간 세부 요율을 협상 중이며 조만간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서 LME 화물이 최초로 취급되는 만큼 원활한 물량 반입 및 사업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원웅기자/wykim@joongboo.com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친 M&M 창고 전경.



인천해수청, 어린이 향만 견학·등대체험

바다 보고 퀴즈 풀며 꿈 키워요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바닷가에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2일 서울 흥은동 한마음공동체 장애우들과 인솔교사,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에게 항구와 바다를 보여주는 향만 견학과 등대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복지시설에서 사회적인 훈련에 전념하며 평소 바다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장애인들은 모처럼 쏘이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재미있는 구경거리에서 흥분하며 즐거워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팔미도 등대를 돌아보고 월미산과 감문지구에서 인천항을 견학한 아이들은 유람선을 타고 인천 앞 바다를 돌며 퀴즈를 푸는 등 잊지못한 추억을 만들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인천해수청과 인천해양방어사령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시민, 소외계층이 바다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희기자 (블로그) ywsong2002

LME 지정창고 등록 완료

(런던금속거래소)

인천항창고업체들

인천항 창고업체들이 LME(런던 금속거래소)의 국제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지정창고 등록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가 22일 LME 물량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주)한진과 동부익스프레스, M&M(구 마이트앤메인) 등 3개 창고사업자가 LME 공식 에이전트와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한 뒤 LME 지정창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LME 지정창고 등록을 순조롭게 마친 이들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LME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항 4부두 종합물류센터를 LME 지정창고로 등록한 (주)한진은 C&P Asia와 NEMS 등 2개 에이전트와 지난달 19일 물량 반입 계약을 체결

해 총 1만2500㎡(최대 반입 물량 4만2000톤) 면적에서 LME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항 3부두 창고(5032㎡)를 LME 물량 처리에 활용할 예정인 동부익스프레스는 C.STEINWEG사와 지난달 12일 일찌감치 사업제휴를 마쳤다. 동부익스프레스와 C.STEINWEG사는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LME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M&M은 4부두 배후지에 있는 2개동의 창고를 각각 PACORINI사와 METRO International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지난달 19일 지정창고 등록을 마쳤다.

특히 METRO International사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국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첫 물량 반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창고수용 최대치(2만톤)의 물량 반입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인천일보

2007년 11월 23일 008면

아침경제



권오경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부원장

는 항만, 공항의 대규모 확장공사 현장을 보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심장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자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중국의 고도성과와 향후 북한의 시장개방을 어떻게 도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홍콩이야 말로 중국으로의 반환 전 후의 시기를 거치면

확대에 따라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심(水深)을 가진 새로운 항만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류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신항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신항 개발 이후 기존 인천항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존 내항의 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개항 이후 지난 150년간 일본의 관문 역할을 해 온 요코하마를 대대적인 항만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 21세기 미래항구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이다. 1965년에 구상되어 1983년에 착공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컨셉은 물, 숲, 역사가 어우러지는 미래항구도시이다. 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친수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에서 '미라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도시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인천도 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신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동시에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는 내항과 도심 재개발에 대한 인천의 '미래항구 21'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면 어떨까 한다. 미래 물류중심도시 인천을 위해 홍콩, 요코하마를 벤치마킹하자.

인천, 홍콩과 요코하마

필자는 지난 11월 초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인천발전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주강(珠江)삼각주'의 대표 도시인 홍콩, 심천, 광주를 방문하여 항만, 공항 등의 물류시설을 살펴보고 이들의 운영과 발전전략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항만으로 설 새 없이 드나드는 수많은 초대형컨테이너선들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

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심천, 광주의 고도성장을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고, 우리 인천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천은 홍콩과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과 함께 추진 중인 인천신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항은 개항 이래 오랜 기간 수도권 관문항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고도성과와 한중간 교역

류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들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내항을 새로운 기능으로 재개발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합의와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처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필자는 일본의 요코하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21(미래항구21)'이라고 불리는 항만 재개발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 파업

광양컨 터미널 운영사 2곳도... 물류 차질 우려

광양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을 인도하는 광양·여수항 예선노조 일부가 22일 파업에 들어가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에 가입한 10개 업체 중 2개 업체 조합원 30여 명이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광양항 전체 예선 31대 중 5대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양항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허치슨과 KIT 노조원 50여 명도 예선 노조와 공동 파업에 돌입해 일부 컨테이너 상하역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예선노조가 장기 파업을 할 경우 대형 선박 접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정상 운항하는 예선을 방해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예선 노조원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벌인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광양항에 입항하려는 1천 500t 급 이상 선박은 안전한 접안을 위해 예선을 이용해야 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국제신문

2007년 11월 23일 001면

해양부 항만위기 관리 ‘구멍’

이달초 전산망 장애 물류마비사고 수습후 알아
부산해양청 등 12시간이나 대응못해 혼란 가중

재발방지회의서 밝혀져

이경식 기자
yisg@kookje.co.kr

“(전국 항만의 전자문서중계(EDI) 전산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오후 4시 복구가 끝나고 난 뒤에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위기 대응태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EDI전산망이 다운돼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의 화물 반출·입 마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해양부와 부산

해양수산청의 해운물류·전산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고는 그날 새벽 4시2분에 터져 약 12시간 후인 오후 4시께 해결됐다. 경제 동맥 구실을 하는 항만 사고는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는데 주도적으로 사고를 수습해야 할 해양부가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 사실은 22일 해양부와 부산 해양청의 물류·전산 담당자들과 항만 EDI망을 관리하는 KL-NET, 부산항 부두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DI시스템 장애복구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확인됐다.

이날 해양부 해운물류본부의 담당 사무관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았다. 부산 해양청의 담당 사무관 역시 “그날 우리 청에선 사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현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주와 터미널 운영사 등 EDI망 이용고객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부두운영사 관계자는 “화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데도 전산망이 언제 복구되는지 통보도 없어 큰 혼란을 빚었다”며 위기대응체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문제를 국가와 민간기업 간 정보 교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 찾았다. 해양부 담당 팀장은 “KL-NET에게만 사고처리를 맡겨놓는 것은 국가가 무책임한 것이며, 장관님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

하셨다”며 “상황 대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KL-NET 측은 이날 “EDI전산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이 서울 LG텔레콤 인터넷데이터센터 한 곳에만 설치돼 있는 바람에 과전류가 흘러 두 시스템 모두 기능이 손상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3의 장소에 백업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KL-NET의 EDI 시스템을 이중화하더라도 네트워크나 각 부두운영사의 전산망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인 물류 전산시스템을 이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부 정보화 담당 사무관은 “국가 전체적인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부두 운영사들이 전산망을 이중화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선전시, 홍콩과 통합 추진

성사 땀 세계 3위 경제도시로 떠올라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深圳)시가 홍콩과의 통합 의사를 밝혔다. 신화통신은 22일 “선전시가 ‘2007~2020년 선전시 도시계획’ 초안을 공시하면서 선전이 홍콩과 거대도시(메트로폴리탄)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선전시의 도시계획안 마련으로) 선전과 홍콩의 통합은 이제 더 이상 홍콩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다”며 “선전의 발전방향은 홍콩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전했다.

도시계획 초안에 따르면 선전시는 ▶혁신형 종합 경제특구 ▶중국 남부 지역의 중심도시 ▶홍콩과 함께 발전하는 메트로폴리탄으로 육성된다. 특히 선전시의 도시 기능으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적 발전을 지지하는 서비스

기지”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선전과 홍콩을 금융·무역·해운 중심으로 공동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조만간 국무원(중앙정부)에 선전시 도시계획 초안의 비준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콩 정부의 정책연구기관인 바우히니아재단 연구센터(智經研究中心)는 8월 초 홍콩과 선전의 도시 통합을 위한 10개 항의 목표를 담은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지 8월 11일자 10면>

이 보고서는 홍콩과 중국의 도시 계획·물류·경제 전문가들이 2년간 연구해 완성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과 경제 관련 부처 관리 50명, 홍콩 정부 관리 50명 등 양측 정책 입안 당사

자 100명의 의견도 담았다.

2020년 두 도시가 통합되면 생산총액이 1조1100억 달러(약 1030조원)로 중국 최대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뉴욕·도쿄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도시가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홍콩의 첵랍콕 공항과 선전 국제공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완공되면 40km 떨어진 두 공항을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단일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두 도시의 경계지역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게 된다. 두 도시의 행정 통합을 위해 ‘공동발전관리국’을 만드는 구상도 들어 있다.

홍콩 측은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에 두 제도를 인정) 원칙을 존중하되 행정과 경제적으로 두 도시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新亞日報

2007년 11월 23일 015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본격 운영 돌입

동부광양물류, 천안축협과 화물처리 MOU 체결

지난 7일 로지스윌인터내셔널(주)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내 석재가공물류센터를 준공한데 이어 동부광양물류센터(주)가 천안축협과 화물처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화물을 반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에 따르면 동부광양물류센터(주)와 천안축협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존 벌크 상태

로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되던 사료를 컨테이너화하여 광양항으로 시범적으로 반입 하였으며(700TEU) 점차 그 물량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동부광양물류센터(주)는 창고부지 및 특수차량 지원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천안축협은 지속적인 화물반입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건조/사료 시장은 수입자 중심의 거래로 이루어져 왔

으나 내년부터 미국 내 옥수수 대체 연료화 추진에 따른 사료품귀현상 및 지속적인 작황 부실로 인해 공급자 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물량확보가 향후 국내 건조/사료 시장의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수입물량의 컨테이너화는 기존에 Bulk상태로 들어오던 사료를 야적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제품 손실(손실을 30%) 부담을 확실히 제거함에 따라 수입업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컨테이너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양/공국현기자
ghgong@shinailbo.co.kr